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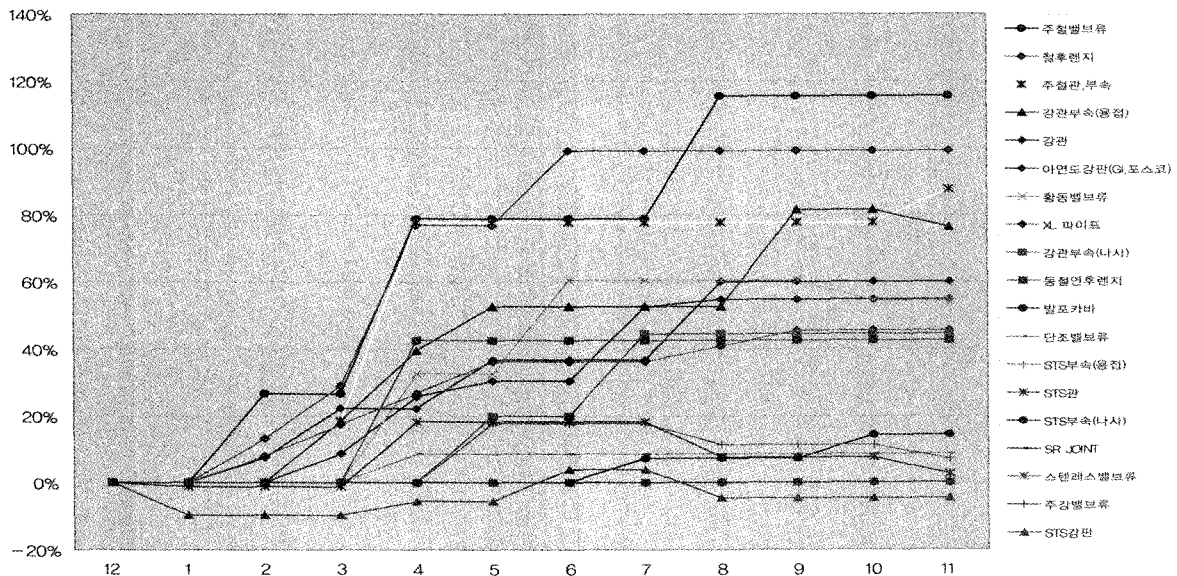
2008년 자재값 폭등을 상기하며

김현회 /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최근의 설비 자재값 움직임을 보노라면 기억하기도 싫은 2008년 자재값 폭등이 오버랩된다. 당시도 원자재 가격 폭등과 매점 매석에 의한 가수요 등으로 설비 자재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현재의 양상이 그때와 많이 유사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0년 4월~5월 자재 동향: 4월 27일 기준)

자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초부터 원자재 가격이 우상향하며 심하게 출렁거리고 있음. - 원자재 시장의 동요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는 내수 시장의 수요부재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을 완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단가 인상을 시도하고있는 상황임.
강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에 전년 대비 11%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시장에서 1차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6월 중 추가로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또 한 차례의 공방이 예상됨.
동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에 8% 정도 동관 가격의 인상을 가져왔던 전기동은 LME 가격이 3월말 톤 당 7,800 달러에서 4월 20일 현재 7,700 달러로 등락을 계속하고있음. - 원자재 시장에서는 톤 당 8,000 달러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생각하고 있음. - 톤 당 8,000 달러 이상으로 인상이 되면 국내 동관시장도 가격인상이 큰 폭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STS관 및 관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원자재 시장의 니켈 가격이 톤 당 25,500 달러에서 27,590 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으나, 현재의 니켈 가격은 실수요를 반영했다기 보다는 펀드자금의 유입에 따른 가격 인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임. - 국내 STS관 시장은 원자재 시장의 니켈가격상승을 어느 시점에서 반영할지 추이를 보고 있는 실정임. - 당분간 국내 STS관의 가격도 소폭으로나마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판단됨.
형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고철 시장의 가격 인상과 제강사의 가격 인상으로 큰 폭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구매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건설 경기 침체속에서도 자재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므로 인상 예상 자재와 그 외 자재를 구분하여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2008년 설비자재 가격 동향, 자료제공 : 원켄네트웍스, 2010년 5월)

그래프는 2008년도 주요 설비 자재 가격의 연간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거의 120% 가까이 오른 자재가 있고 철 후렌지, 강관 용접 부속 등 철재 관련 자재 등도 상승폭이 컸으며 XL파이프, 동절연후렌지 등도 50%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활발한 경기에 따른 수요 초과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투기 세력에 의한 오버슈팅 즉 과수요에 따른 비정상 가격 폭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올해 상황과의 유사성이다. 올들어 원자재 가격이 뛰는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달러화 약세에 따른 투기 자금의 공격과 세계 경기 활성화를 대비한 선구매가 그것이다. 결국 2008년과 비교해 볼 때 투기 자금에 의한 과수요 유발로 가격이 폭등하는 면은 대동 소이하다. 반면에 수요 측면에서 볼 때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시에는 금융위기 전까지 건설 경기를 비롯하여 전체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수요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알다시피 경기가 그리 좋지 않다. 즉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자재 가격만 오르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때 자재 가격의 향후 동향은 결국 경제, 특히 건설 경기가 쥐고 있

는 것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투기 세력이 높은 가격 상승의 불에 실질 수요라는 기름을 붙는 격이 되어 자재 값은 걸잡을 수 없게 될 것이고 반대로 경기가 오그라들면 2009년의 대 폭락이 재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의 경기는 낙관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 원켄네트웍스(구 설비넷) 사업총괄 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t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에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자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